

송옥의 <高唐賦> <神女賦> 연구*

김인호**

目 录

1. 서언
2. 작가 송옥과 그의 작품들
3. 호색부의 시대 문화적 배경
4. <고당부> <신녀부>에 대한 여러 문제들
5. 작품 내용
6. 결론

1. 서언

송옥의 <고당부> <신녀부>는 왕일의 《楚辭章句》에 실려 있지 않고, 또한 후인들이 한대의 모든 부를 함께 모아 편찬한 《全漢賦》에도 한부로 인식되지 않아 실려 있지 않다. 그래서 송옥의 위 2부 연구는 초사 연구에도 속하지 않고 한부 연구에도 속하지 않아, 역대 중국학자들이 홀시하여 별로 연구를 행하지 않은 것 같다. 게다가 위 2부는 好色賦 계열이라 할 수 있어 근엄한 유학자들이 이들을 내쳐 더욱 연구가 미진한 분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송옥의 <고당부> <신녀부>는 초사와 한부의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두 방면의 연구에서 모두 빠져 있어 별로 연구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 작품이 초사와 한부의 중간쯤에 해당되고 또한 호색 미인부 계열이라, 중국 辭賦史에서 한번쯤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동의대 중문학과 교수

2. 작가 송옥과 그의 작품들

屈原이 이미 죽은 후에 楚나라에 宋玉, 唐勒, 景差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모두 辭를 좋아하여 읊조려바침¹⁾으로써 칭함을 얻었다. 그러나 모두 屈原의 완곡하면서도 함축적인 문장만을 쫓아 끝내 감히 직간하지는 않았다.(屈原既死之後, 楚有宋玉, 唐勒, 景差之徒者, 皆好辭而以賦見稱. 然皆祖屈原之從容辭令, 終莫敢直諫)(《史記·屈原賈生列傳》)

사마천 《史記》의 이 글은 송옥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송옥이 살았다고 하는 楚나라 말기는 사마천으로부터 근 100여년 전으로 그의 송옥에 대한 언급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져, 후대의 전적에 보이는 송옥에 대한 기록들에 《사기》의 이 기록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어떤 사람이 문기를 景差, 唐勒, 宋玉, 枚乘의 賦에 유익함이 있는지요?
말하기를: 반드시 또한 음란하다. 음란한 즉 어떤가? 말하기를: 詩人の 賦는 화려하면서도 법도에 맞으나, 辭人の 賦는 화려하면서도 음란하다고 했다.(或問景差, 唐勒, 宋玉, 枚乘之賦也益乎? 曰: 必也淫. 淫則奈何, ? 曰: 詩人之賦麗以則, 辭人之賦麗以淫.)(揚雄 《法言·吾子》)

여기 양웅의 《法言·吾子》에서 말한 ‘화려하면서도 법도에 맞는(麗以則)’ 詩人の 賦란 악부민가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宗廟歌詩와 安世房中歌같은 宮中祭儀歌를 의미하고, ‘화려하면서도 음란한(麗以淫)’ 辭人の 賦란 바로 景差, 唐勒, 宋玉, 枚乘 등이 읊조린 작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당시 揚雄도 이들 辭人들의 작품이 ‘화려하면서도 음란하다(麗以淫)’라고 하여, 이들의 작품들에 음란하고 호색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처음 楚나라 賢臣 屈原이 쫓겨나게 되어 <離騷> 등 여러 작품을 지어 스스로 슬피 애도했다. 후에 宋玉, 唐勒의 무리들이 그를 사모하여 기술했는데 모두 이름이 드러났다.(始楚賢臣屈原被逸放流, 作<離騷>諸賦以自傷

1) 賦를 ‘읊조려 바침’이라고 해석했는데, 이는 줄고 <辭 賦 명칭 유래고> 참조

悼. 後有宋玉, 唐勒之屬慕而述之, 皆以顯名(班固 《漢書·地理志》)

앞의 《사기》에서 ‘칭함을 얻었다(見稱)’와 여기 《한서》에서의 ‘이름이 드러났다(顯名)’라고 한 것은 굴원의 제자라고 하는 송옥 당륙 경차의 무리들이 모두 이들 작품을 지어 楚王의 총애를 받아 득세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화려하면서도 음란한(麗以淫)’ 이들 辭賦를 지어 초왕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 총애를 받아 크게 득세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고는 같은 《한서·藝文志》에서:

大儒 荀子 및 楚나라 신하 屈原이 참언을 당하여 나라를 근심하여 모두 賦를 지어 풍자했는데, 모두 側隱히 하는 古詩의 뜻이 있었다. 그 후 宋玉, 唐勒과 한이 건국된 후 枚乘, 司馬相如 밑으로 揚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투어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늘어뜨린(侈麗宏衍) 글을 지어 그 諷諭의 뜻이 없어지게 되었다.(大儒孫卿及楚臣屈原離讒憂國, 皆作賦以風, 咸有側隱古詩之義. 其後宋玉, 唐勒, 漢興, 枚乘, 司馬相如, 下及揚子雲, 竟爲侈麗宏衍之詞, 沒其諷諭之義)

유가적 교양의 소유자 반고는 대유학자 순자의 작품과 굴원의 작품에는 풍유의 뜻이 있었으나, 그 후 宋玉, 唐勒, 枚乘, 司馬相如 밑으로 揚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투어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늘어뜨린(侈麗宏衍)’ 글을 지어 그 諷諭의 뜻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대유학자인 순자와 굴원의 작품에 풍유의 뜻이 있다고 한 것은 그의 유가적 견해에 의해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지, 실은 지금 남아있는 순자의 孫賦와 굴원의 <이소> 이하 여러 屈賦에는 유가적인 諷諭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후에도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그들이 떠받드는 순자와 굴원의 작품들에 유가적인 풍간의 의미가 있다고 보려고 노력하였다.

반고는 이들 2인을 제외한 宋玉, 唐勒, 枚乘, 司馬相如 밑으로 揚雄에 이르기까지의 楚漢시대의 辭賦家들의 작품 모두가 다투어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늘어뜨린(侈麗宏衍)’ 글을 지어 제왕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작품을 지었다고 보고 있다. 이상이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 그리고 양웅의 《법언》 등에 보이는 송옥과 그 무리들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이고 또한 가장 믿을만한 기록의 전부이다. 위의 기록으로 보면, 송옥과 당륙 등 그 무리들은 ‘화려하면서도 음란하고(麗以淫)’ 그리고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늘어뜨린(侈麗宏衍)’ 辭 작품들을 지어 ‘칭함을 얻고(見稱)’ ‘이름이 드러난(顯名)’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초왕이나 한초 제왕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의 귀를 즐겁게 한 여러 작품들을 지어 총애를 받아 득세한 宮中辭人인 것이다.

여기에서 송옥의 生平和 그의 저작만을 살펴보면, 그의 生卒 연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대체로 楚나라 頃襄王 시기에 활동한 인물로 頃襄王의 총애를 받아 大夫까지 벼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楚의 鄢地에서 태어나²⁾ 일찍이 굴원의 제자가 되었다³⁾.

그러나 그가 굴원과 직접인 師弟관계였는가, 아니면 굴원이 죽은 후 단지 그를 모방하고 추종하여 사작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한다. 王逸의 《楚辭章句·九辯序》에 “宋玉은 屈原의 제자다. 그 스승이 충성스러웠으나 쫓겨난 것을 민망하고 애석하게 여겨 고로 <九辯>을 지어 그 뜻을 기술하였다.(宋玉者, 屈原弟子也. 憫惜其師忠而放逐, 故作<九辯>以述其志.)”라고 하여 송옥이 굴원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송옥이 굴원의 직접 제자였던 같은 기술은 후한 말 왕일의 이 기록 이전에는 그 어떤 전적에도 보이지 않는다. 앞에 인용한 사마천의 《史記·屈原賈生列傳》에 “屈原이 ‘이미 죽은 후에’ 楚나라에 宋玉, 唐勒, 景差의 무리들이 있었다.(屈原既死之後, 楚有宋玉, 唐勒, 景差之徒者.)”라고 하여, 굴원이 ‘이미 죽은 후에’ 송옥이 활동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마천 그는 굴원과 송옥이 동시대인이고 또한 직접적인 사제관계인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 언급

2) 鄢道元の 《水經·沔注》와 李昉 등 《太平實宇記》 권 145 참조

3) 王逸의 《초사장구·九辯序》 참조

은 屈宋이 직접적인 사제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맹자가 공자에게서 직접 배운 사제관계가 아닌데도 孔孟이라고 하는 것처럼, 송옥은 굴원에게서 직접 배운 사제관계가 아닌데도 屈宋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기도 송옥이 산 시대와 가깝고 또 더 믿을 만한 역사가 사마천의 《史記·屈原賈生列傳》의 위 기술로 보면, 송옥은 굴원에게서 직접적으로 배운 제자라기보다는 굴원 사후 단지 굴원을 추종하는 초 말기 경양왕 때의 궁정사인인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송옥의 작품에 대해서는 《한서·예문지·시부략》에 宋玉賦 16편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부 작품들을 일일이 들고 있지 않다. 또한 부작품 외에는 그가 다른 어떤 것을 지었다는 기록이 후대에도 전혀 없고 지금 전해내려 오는 그의 작품에는 賦작품만 있어, 그가 전문적인 부작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금존하는 전적에 송옥의 부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초사장구》에 실린 그의 작품 2종(<九辯>, <招魂>), 《文選》에 실린 그의 작품 7종(<九辯>, <招魂>, <風賦>, <高唐賦>, <神女賦>, <登徒子好色賦>, <對楚王問>), 《古文苑》에 실린 그의 작품 6종(<大言賦>, <小言賦>, <諷賦>, <釣賦>, <笛賦>, <舞賦>)으로 도합 15종이지만, 실제로 중복된 것(<九辯>, <招魂>, <風賦>)을 빼면 실은 지금 그의 작품이라고 전해오는 것은 모두 12종이다. 이들 작품들이 진정 초의 궁중사인 송옥의 작품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위 작품 중 <招魂>은 사마천이 그의 《사기·屈原賈生列傳》에서 굴원의 작품 <招魂>을 읽은 적이 있다고 하고 있어,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招魂>을 송옥의 작으로 편집한 왕일의 《초사장구》는 잘못된 것이고 실은 굴원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옳다고 보고 있다. 또한 《古文苑》에 실린 송옥의 작이라고 하는 <舞賦>는 실은 《文選》에 실린 傅毅의 <舞賦>의 일부분으로 밝혀졌다. 그 외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명대 焦閔(《筆乘》) 이하 청대 張惠言(《賦鈔》) 崔述(《東壁遺書》)과 현대의 수많은 擬古學者들에 의해 의심되어

오고 있다. 그들 의고학자들은 이들 작품들이 송옥의 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 같은 느낌까지 주고 있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는 <구변>도 굴원의 작품이지 송옥 작이 아니라고 하며 단 한 작품도 송옥이 지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가능하면 많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져다대어 이들 작품들이 모두 후대 위작이며 실은 한 작품도 송옥의 작품이 없다고 주장하고자 노력하여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내세우려고 하는 듯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온건하게 보면 <九辯>, <風賦>, <高唐賦>, <神女賦>의 4 작품까지는 그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작품의 진위 여부는 더 따지지 않고, <高唐賦>와 <神女賦>를 연구하고자 한다.

3. 호색부의 시대 문화적 배경

이들 <고당부> <신녀부> 두 작품은 호색부 계열로, 이들 호색부가 지어진 楚 漢나라에서는 사회에서 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전국 초시대에 지어진 저서로 알려진 《도덕경》 6장에 여자의 성기를 묘사한 듯한 인상을 주는 구절이 있다(근가⁴), 한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방중술을 추구하는 기풍이 유행했다던가, 周穆王이 八駿을 타고 西王母를 섭렵하는 이야기가 당시 사회에 널리 유포되었다던가 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한부의 대표적인 작가인 사마상여가 호색부 계열인 <美人賦>를 짓고 있고, 또한 그가 卓文君과 淫奔한 것을 몇몇하게 내세우며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⁵, 당시 사회의 이런 호색적인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굴원의 <이소>에도 굴원이 伏羲氏의 딸 宓妃, 은 시조를 낳은 有娥氏 簡狄, 그리고 夏 少康의 두 后妃인 二姚같은 여인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⁶

4)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5) 《史記·司馬相如傳》 참조

또한 《한서·예문지》에는 方技略을 따로 떼어 七略 중에 넣고 그 속에 방중술에 관한 여러 궁중서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⁷⁾, 이로 보아도 당시에 성을 추구하는 현상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음양의 조화를 통한 음기와 양기를 보충하는 방법으로서의 성행위 기술이 당시 널리 유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명 陰道術이라고 하는 방중술이다. 성행위를 통해 불노장생을 추구하는 황로문화의 일종인 방중술이 당시 크게 성행한 것이다. 이 房中을 補精 혹은 補瀉라고 했다. 한대인들은 이 방중술로 補求傷損, 政治重病, 採陰益陽, 增年益壽를 추구했는데, 그 요체는 還精補腦⁸⁾에 있다고 했다.

후대 방중술의 대가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素女는 비록 《한서·예문지》에는 그 목록이 보이지 않지만, 한인 장형의 작품 <樂府>에 “素女爲我師, 天老教軒皇” 라고 하여 素女에 대한 일을 읊고 있다. 素女の 방중에 대한 기록은 《隋書·經籍志》에 보이는데, <素女秘道經> 1권과 <素女方> 1권이 그것이다. 이로 보아 素女는 한대 당시부터 방중술에 뛰어난 신녀로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한부에는 성을 추구한 작품이 많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굴원의 <이소>에도 굴원이 천계환유하며 神女를 추구한 여러 구절이 보이고, 송옥에게는 이 性의 추구만을 본격적으로 그린 <神女賦>와 <登徒子好色賦>가 있다. 또한 한부의 경우 사마상여의 <美人賦>처럼 호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작품 외에도 여인을 추구하며 그 즐거움을 노래한 호색부가 많다. 초나라와 전한시대에 사회에 성을 추구한 호색적인 기풍이 크게 인 것이다.

6) 역대 주석가들은 이를 굴원이 현명한 군주를 찾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7) 《한서·예문지》 方技略에는 <容成陰道> 26권, <務成子陰道> 36권, <堯舜陰道> 23권, <湯盤庚陰道> 20권, <天老雜子陰道> 25권, <天一陰道> 24권, <皇帝三王養陽方> 20권, <三家內房有子房> 17권 등 8가 180권의 목록이 실려있다.

8) 《抱朴子·釋滯》: “房中之術十餘家, 或以補救傷損, 或以政治衆病, 或以採陰益陽, 或以增年益壽, 其大要在於還精補腦一事也!”

고대인들은 정기의 누설로 정력이 쇠락해지면 곧 노화되어 죽게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영생과 장수의 비결로 정기의 누설을 막는 것을 중시 여겼는데, 그래서 그들은 “꼭 잡고 사정하지 말고, 精을 돌려 뇌를 보충하라.”(握固不瀉, 還精補腦)(《後漢書·方術傳》의 주)는 것을 방중술의 제1조로 가르치고 있다.

4. <고당부> <신녀부>의 여러 문제들

송옥의 <고당부>와 <신녀부>는 그 내용상 함께 이어진 자매편이라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연이어져 있고 결구가 진후 호응을 하여, 후자는 함해보야 그 주제를 알 수 있다고 하며 심지어 하나의 작품이 上下로 나누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는 사마상여의 <子虛賦>와 <上林賦> 그리고 양웅의 <羽獵賦>와 <長揚賦>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⁹⁾, 이 두 작품 즉 <고당부>와 <신녀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모두 고당의 신녀로, 단지 <고당부>는 신녀가 놀러온 고당의 장엄한 경물에 중점을 두고 묘사했고, <신녀부>는 그 곳에 놀러온 신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자는 “楚襄王과 宋玉이 雲夢之臺에서 함께 노닐다가, 高唐之觀을 본 (楚襄王與宋玉游雲夢之臺, 望高唐之觀)” 후 고당의 경치에 대한 초 양왕의 下問에 대해 송옥이 이에 對하며 고당의 장엄한 경물을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고, 후자는 “송옥으로 하여금 高唐의 일을 읊조리게 하고, 그날 밤 왕이 잠들어 꿈에 神女와 만나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使玉賦高唐之事, 其夜, 玉寢, 夢與神女遇, 其狀甚麗)”, 그 후 깨어나서 송옥에게 신녀에 대해 下問하니 송옥이 對하며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화려하게 열거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들 두 작품의 주제에 대한 옛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하나는 唐人 李善을 대표로 하는 諷刺說이다. 《문선》 19에 실린 <고당부>에 대한 이선의 주에 “이 부는 대개 그 일을 假設한 것으로, 淫惑을 풍간한 것이다.(此賦蓋假設其事, 諷諫淫惑也.)”라고 하여, 초왕이 신녀를 만나는 淫惑을 풍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다른 하나는 宋人 洪邁가 주장한 托興說로 《容齋隨筆》 권3에서 “宋玉의 高唐 神女 2賦는 그것이 寓言 托興한 것이 심

9) 清人 何義門 “兩賦當相次合看, 乃見全旨, 亦猶相如之<子虛>, <上林>, 揚雄之<羽獵>, <長揚>, 合二篇見抑揚頓挫之妙.”

히 확실하다.(宋玉高唐神女二賦, 其爲寓言托興甚明)”라고 하며, 임금과 신하의 만남이 어렵다는 것을 비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 학자들의 주장을 추종하여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세우는 학자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論屈原與宋玉>을 쓴 馬稷高(1987년에 출간된 《船山學報》에 실려 있음), <文選載宋玉賦內容新論>을 쓴 鄧元煊(1990년 《사천사범대학학보》에 실려 있음), <宋玉神女賦的訂訛和高唐神女故事的寓意>를 쓴 袁珂(1962년 《광명일보》에 실려 있음)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주장은 매우 유가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실은 고당 신녀 두 작품에서 읊은 내용과는 다른 건강부회한 해석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해 姜亮夫는 그의 <楚辭學論文集·宋玉簡述>에서 “宋玉의 글은 즉 단지 超人的 규모로 질탕한 情思를 쓴 것으로, ……단지 인생 오락에서 출발한 것이다.(宋玉之文, 則只在用超人的規模來寫佚蕩的情思, ……只是從人生娛樂出發)”라고 하여 정치적 의미와 풍간의 뜻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¹⁰⁾. 또한 褚斌杰도 1995년에 《북경대학학보》에서 출간한 <宋玉高唐神女二賦的主旨及藝術探微>에서 “두 賦의 전체를 보면, 그것은 응당 한편의 신화를 제재로 삼은 남녀의 정을 그린 작품이다.(從兩賦的整體看, 他應該是一篇以神話爲題材的寫男女之情的作品)”라고 하여 정확히 보고 있다. 褚斌杰은 또 <고당부>는 주로 巫山지역 대자연의 景觀을 묘사하여 산수문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신녀부>는 주로 전설 중의 여신의 모습과 남녀 情思를 그려 애정문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¹¹⁾ 고로 이들 두 작품들은 단순히 고당의 아름다움과 신녀의 자태를 힘써 묘사하여 초 양왕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 즐겁게 만들기 위하여 지어진 작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 姜亮夫 《楚辭學論文集 宋玉簡述》, 《姜亮夫全集》 제 8집, 상해고적출판사 2003년 판, 876쪽 참조

11) 褚斌杰 <宋玉高唐神女二賦的主旨及藝術探微>, 《북경대학학보》(哲社版) 1, 1995년 제 1기, 74쪽 참조

서한 말 劉向·劉歆 부자가 궁중도서를 정리하면서 《송옥집》을 편집하였고, 또한 거기에 <序>까지 부쳤다고 반고의 《한서》에 기록되어 있다. 반고의 《漢書·藝文志》에 송옥부 16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漢書·藝文志》는 유향 유희부자가 정리한 성과에 의거했으므로 <고당부>와 <신녀부>도 《송옥집》에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러나 이 《송옥집》은 지금 망일되어 없어졌고 또한 《漢書·藝文志》에는 단지 송옥부 16편이라고만 기재하고 16편의 각 작품을 열거하지 않아 지금 전해오는 <고당부> <신녀부>가 과연 그 당시 송옥부 16편 속에 포함되어진 작품들인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의 <고당부>와 <신녀부> 전문은 그 한참 후에 편찬된 《文選》에 송옥의 작이라며 처음 실려 있어, 이에 이들 작품이 실은 전국시대 송옥의 작이 아니고 송옥에 가탁한 후대인의 작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록에 의하면 <고당부>란 작품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동한의 傅毅로, 그는 그의 작품 <舞賦>에서 “楚襄王이 雲夢에서 노닐다가, 송옥으로 하여금 高唐의 일을 읊조리게 했다.(楚襄王既游雲夢, 使玉賦高唐之事)”라고 읊고 있고, 또한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 孟康이 사마상여의 <자허부>에 나오는 “于是楚王乃登陽雲之臺”라는 구절에 주를 달아, “雲夢 중의 高唐의 臺는 송옥이 읊은 바로 그 구름이 높게 나오는 양지바른 곳을 말한 것이다.(雲夢中高唐之臺, 宋玉所賦者, 言其高出雲之陽也)”라고 하여 송옥의 <고당부>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췌나라 서광이 사마상여의 이 구절에 주를 달아 “송옥이 췌나라 왕이 陽雲之臺에 노닐었다고 말했다.(宋玉曰, 楚王游於陽雲之臺)”라고 했으니, 이로 보면 서한 무제 때 인물인 사마상여가 가장 먼저 송옥의 <고당부> 전고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지금 전해내려 오는 《文選》에 실린 고당부의 내용과 약간 다를지는 몰라도, 어쨌든 서한 무제 당시 이미 <고당부>란 작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일찍이 <신녀부>를 언급한 사람은 삼국시대 曹植이었다. 그는 그의 <洛神賦序>에 “黃初 3년에 내가 서율로 가는 중에 또한 洛川을 건너게

되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물의 신은 이름이 宓妃라고 한다. 송옥이 楚나라 왕의 神女의 일에 느껴 드디어 이 부를 지었다.(黃初三年, 余朝京師, 還濟洛川. 古人有言, 斯水之神, 名曰宓妃. 感宋玉對楚王神女之事, 遂作斯賦)”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낙신부>는 송옥의 <고당부> <신녀부> <등도자호색부>와 함께 《문선》 권 19 賦癸 情에 실려 있다. 남북조시대 《文選》에 이 2부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고, 당대의 《藝文類聚》와 《初學記》에 이 2부의 부분 내용이 인용되어 있으며, 《文選》의 李善 주에 <고당부> 33 구절과 <신녀부> 17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송대의 《태평어람》에 <고당부> 6 구절과 <신녀부> 3 구절이 절록되어 있고, 청대의 《歷代賦匯》《全上古三代文》抄本 《宋玉集》에 모두 이 2부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 《文選》에 이들 두 작품이 수록된 후 후대 중국 문헌에 <고당부> <낙신부>라는 작품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무제 당시 이 <신녀부>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매편인 <고당부>가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아 <신녀부>도 <고당부>와 함께 그 당시 이미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당부> <신녀부>의 작가가 진짜 송옥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대 이전에 이를 의심하는 학자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청대 擬古派 학자인 崔述에게서 시작된다. 그 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들 작품이 송옥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이 속출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游國恩 陸侃如와 劉大白 등이다. 游國恩은 지금 전해오는 작품 중에 <구변>만 송옥작이라고 주장했고, 陸侃如와 劉大白은 <구변>과 <초혼>만 송옥의 작품이라고 하며, 나머지는 모두 후대 위탁한 작품이라고 고증하려고 노력했다. 심지어 대학자 胡適같은 이는 그의 <讀楚辭>란 논문에서 송옥의 실존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었다¹²⁾.

위진남북조 시대 남조의 梁나라 사람 蕭統이 편찬한 《문선》에 이들 두

12) 호적의 《胡適學術文集》 415쪽에 실린 <讀楚辭>란 논문 참조(중화서국, 1998년)

작품의 전문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권 19 賦癸 情에 曹植의 <洛神賦>와 함께 송옥의 <고당부> <신녀부> <등도자호색부>의 3부를 실고 있다. 문선에 보면 10干 순으로, 賦甲, 賦乙, 賦丙, 賦丁, 賦戊, 賦己, 賦庚, 賦申, 賦壬, 賦癸로 부작품들을 각각의 권에 실고 있는데, 賦癸란 賦작품들을 모은 것 중 10번째라는 것을 뜻한다. 蕭統이 이들 작품을 情이라고 제목한 것은 모두 남녀 간의 情을 읊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曹植의 <洛神賦>도 송옥의 <신녀부>와 그 의취가 비슷하게 작가가 洛水의 女神을 만나 雲雨之情을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당부> <신녀부> 등 이들 2부가 이렇게 한참 뒤인 위진 남북조 시대 양나라 소통이 편찬한 《문선》에 처음 전문이 실려, 후대 학자들이 송옥작이라는 데에 의심을 많이 품었으며 또한 진정한 초사나 한부로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래 들어 몇몇 학자들은 여기에 반기를 들어 이들 작품들이 정말로 송옥작이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여 송옥작 진위문제가 이들 작품을 연구하는 중점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처음 불을 붙인 학자가 1957년 <宋玉作品的眞僞問題>를 발표한 胡念胎이다. 그의 고증은 굉장히 철저하여, 후대 袁行霈의 《中國文學史》와 褚斌杰의 《先秦文學史》에서도 <고당부>와 <신녀부>를 송옥의 작품으로 편입시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고당부>와 <신녀부>가 비록 소통의 《문선》에 그 전문이 처음 기록되어 있지만, 한 무제 때 인물인 사마상여가 <고당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고당부>와 <신녀부>가 이미 전한 무제 때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가 이들 작품을 송옥과 연관시켜 언급한 것으로 보아 당시인들이 <고당부>와 <신녀부>를 송옥작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전해오는 《문선》에 실린 <고당부>와 <신녀부>의 내용과 사마상여 때 유행한 <고당부>와 <신녀부>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보아 큰 내용상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사마상여 때 유행한 <고당부>와 <신녀부>가 그 당시 비록 누군가에 의해 송옥에 가탁해 지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송옥의 <고당부>와 <신녀부>의 제작 의도와 내용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논어》가 공자가 직접 짓지 않았다고 공자와 전혀 연관시키지 않고 그의 사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5. 작품 내용

1) <고당부>

고당부는 고당의 경치를 읊은 山水賦인데, 신녀를 화려하게 묘사한 <신녀부>와 짝을 이룬다. <고당부>는 “楚襄王과 宋玉이 雲夢之臺에서 함께 노닐다가, 高唐之觀을 본(楚襄王與宋玉游雲夢之臺, 望高唐之觀)”이라고 하여, 高唐之觀이 雲夢之臺에 있는 것 같으나, 실은 고당지관은 巫山에 있는 것으로 그것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黃侃은 그의 《文選評點》에서 “高唐은 雲夢 가운데 없고, 마땅히 巫山 옆에 있어야 하는데, 글 속에서도 가히 고증할 수 있다.(高唐不得在雲夢中, 當在巫山之旁, 文可證也)”라고 했다. <고당부> 첫 구에 “옛날에(昔者)”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송옥 자신이 고당과 신녀에 대해 전해들은 내용을 초 양왕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부분은 초 양왕의 下問과 이에 대한 송옥의 對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초 양왕이 고당에서 일어나는 아침 구름(朝雲)을 보고 기이하게 느껴 송옥에게 물으니, 송옥은 이에 대해 楚先王과 巫山之女の 偶合之事와 아침에는 아침구름(朝雲)이 되고 저녁에는 지나가는 비(行雨)가 되는 내용 및 巫山之女를 위하여 朝雲寺를 세웠다는 고사를 이야기 한다. 이에 초 양왕이 “가히 노닐 수 있는가?(可遊乎)”라고 물으니, 그것을 받아 송옥이 高唐之妙處에 노닐 수 있다고 답하여, 초 양왕으로 하여금 고당의 景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에 양왕이 “시험삼아 과인을 위하여 그것을 읊조려 보아라(試爲寡人賦

之)“라고 하자, 송옥은 고당의 경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읊조리는(賦)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읊조린 부분은 초사체와 시경의 4언체가 섞여있으며, 고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려하게 열거하며 포장 서술하고 있다. 후대 남녀간의 정을 雲雨之情이라고 하는 것은 <고당부>의 이 고사에서 유래한다. 작품 내용은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巫山 高唐觀에 올라서 본 바의 비운 뒤의 맑게 갠 경치와 百川이 모여 흘러 사람 마음을 놀라게 하는 모습, 2) 신중의 猛獸鷲禽으로부터 수중의 물고기까지 열거법적으로 고당의 화려한 경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3) 고당의 사방 산들의 험준함과 기암괴석의 묘사 동굴의 깊음 등을 묘사하며, 4) 고당관의 다른 한 쪽을 보니 산지가 평평하고 방초가 무성하게 피어나며 온갖 새들이 울고 方土들이 모인 모습이 모두 다른 세계가 있는 듯하다고 묘사하며, 5) 초왕이 만약 여기에 오시면 가히 百神한테 제사지내고 온갖 음악을 즐기며 가히 말을 풀어 수렵할 수 있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두 할 수 있다는 내용, 6) 왕이 만약 놀러와 신녀를 만나 즐기려면, 먼저 목욕계계하고 길일을 택해 특수한 수레를 타고 오셔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작품 끝에 “천년 만년 수명을 늘리시길(延年益壽千萬歲)”라는 본문의 내용과 하등 관계없는 글귀가 들어 있는데, 이는 제왕문학시대인 한대의 賦와 詩 작품에 자주 보이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이 작품이 제왕을 위해서 읊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작품은 초 양왕의 고당의 경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고당부>의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절록하여보면 아래와 같다.

옛날에 楚나라 襄王과 宋玉이 雲夢의 누대에서 노닐다가 高唐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그(고당) 위에 홀로 구름 기운이 있어, 높다란 산봉우리도 곧바로 올라가 홀연히 모양을 바꾸는 것이 순식간이라 변화가 무궁하다. 왕이 송옥에게 묻기를: “이는 어떤 기운인가?” 송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소위 朝雲이란 것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무엇을 朝雲이라고 말하는가?” 송옥이 말하기를: “옛날에 先王이 일찍이 高唐에서 노닐다가 피곤하여 낮잠을 자게 되어 꿈에 한 婦人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첩은 巫山에 사는 여자입니다. 高唐의 客이 되어, 임금께서 高唐에서

노닌다는 것을 들었는데, 원컨대 枕席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다. 왕이 이로 인해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떠나면서 고하여 말하기를: ‘첩은 巫山の 양지 바른쪽 험준한 높은 언덕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침구름(朝雲)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지나가는 비(行雨)가 됩니다. 아침 저녁마다 陽台의 아래에 있습니다.’ 했다. 아침에 그것을 보니 (그녀의) 말과 같아 고로 사당을 세워 ‘朝雲寺’이라고 불렀다.” 왕이 말하기를: “아침 구름(朝雲) 처음 나올 때 그 상태는 무엇과 같은가?” 송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처음 나올 때는 무성하기가 똑바로 선 소나무와 같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서 밝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소매를 들어 해를 가리는 것 같으니 그리워하는 이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홀연히 모양을 바꾸는 것이 4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치달아 모는 것과 같고, 깃발을 세워 서늘하기가 바람과 같고 淒然하기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비가 멈추어 구름이 있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했다. 왕이 말하기를: “寡人(고당에서) 지금 노닐 수 있겠는가?” 송옥이 말하기를: “됩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과 같은가?” 송옥이 말하기를: “높고 돌출되어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넓고 광대하여 만물을 모두 품을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 이어져있고, 아래로는 호수에 나타나니 珍怪하고 기이하고 장대하기가 가히 칭하여 논할 바가 없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시험삼아 寡人을 위하여 그것을 읊어보아라.” 송옥이 말하기를: “예 예.”(昔者楚襄王與宋玉游于雲夢之臺, 望高唐之觀。其上獨有雲氣, 崢嶸直上, 忽兮改容, 須臾之間, 變化無窮。王問玉曰: 此何氣也? 玉對曰: “所謂朝雲者也。” 王曰: “何謂朝雲?” 玉曰: “昔者先王嘗游高唐, 怠而晝寢, 夢見一婦人, 曰: ‘妾, 巫山之女也。爲高唐之客, 聞君游高唐, 愿荐枕席。’ 王因幸之。去而辭曰: ‘妾在巫山之陽, 高丘之阻。旦爲朝雲, 暮爲行雨。朝朝暮暮, 陽台之下。’ 旦朝視之, 如言, 故爲立廟, 號曰‘朝雲。’ 王曰: “朝雲始出。狀若何也?” 玉對曰: “其始出也, 暉兮若松檜; 其少進也, 晰兮若姣姬, 揚袂鄣日, 而望所思; 忽兮改容, 倡兮若駕駟馬, 建羽旗, 湫兮如風, 淒兮如雨; 風止雨霽, 雲無所處。” 王曰: “寡人方今可以游乎?” 玉曰: “可。” 王曰: “其何如矣?” 玉曰: “高矣, 顯矣, 臨望遠矣; 廣矣, 普矣, 萬物祖兮。上屬于天, 下見于湖, 珍怪奇偉, 不可稱論。” 王曰: “試爲寡人賦之。” 玉曰: “唯唯。”)

高唐의 大觀을 생각하니, 독특하여 가히 짝될만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네. 巫山은 성대하여 그 짝될만한 것이 없는데, (가는) 길은 서로 엉켜있고 중첩되어 있네. 험준한 바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큰 제방에 물

이 가득 고여 있네. 하늘에서 비가 막 멈추고, 여러 골짜기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네. 물은 우당탕 쿵쿵 모든 소리 삼키고, 모든 골짜기 물들이 함께 들어가네. 물은 넓어 사방에 흘러넘치고, 물은 모여 고요히 가득 차 멈추지 않네.……중략(惟高唐之大體兮, 殊無物類之可儀比. 巫山赫其無疇兮, 道互折而曾累. 登巉岩而下望兮, 臨大坻之稽水. 遇天雨之新霽兮, 觀百谷之俱集. 溟溟其無聲兮, 澗淡淡而并入. 沆洋洋而四施兮, 霧湛湛而弗止.……중략)

왕께서 장차 가서 보려고 하시면 필히 먼저 齋戒하시고 擇日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한 수레를 타시고 玄服으로 갈아 입으시며, 구름같은 깃발 세우고 무지개 허리띠를 하며 翠鳥의 깃털로 수레 덮개를 하십시오. 바람이 일어나고 비가 멈추면 천리를 내달으십시오. 그러면 대개 몽매함을 깨우치고 가서 스스로 (신녀를) 만나게 됩니다. 萬方을 생각하고 나라의 해로움을 근심하며, 성현의 길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왕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게 하십시오. 몸의 막힌 각 부분을 통하게 하고 정신의 막힌 곳을 통하게 하십시오. 천년 만년 수명을 늘리시길.(王將欲往見, 必先齋戒, 差時擇日. 簡輿玄服, 建雲旒, 霓爲旌, 翠爲蓋, 風起雨止, 千里而逝. 蓋發蒙, 往自會. 思萬方, 憂國害, 開賢聖, 輔不逮. 九竅通郁, 精神察滯, 延年益壽千萬世.)

2) <신녀부>

이 작품은 중국 최초로 미인을 칭송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巫山 神女の 아름다움을 “그 모습 짝이 없고, 그 아름다움 끝이 없네.(其象無雙, 其美無極)”라고 표현하며, 중국의 절세미인 西施와 견주어도 “比之無色”이라고 했다. 이 미인부는 후대 미녀를 묘사하는 작품들에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 曹植의 <洛神賦>가 송옥의 <신녀부>의 영향을 받은 것은 너무 뚜렷하며, 또한 王粲, 楊修, 江濤 등의 후대 많은 작가들이 <신녀부>를 쓴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 작품 성취도는 송옥의 <신녀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신녀부>는 <고당부>를 이어 지은 작품으로, 초 양왕이 송옥으로 하여금 고당의 일을 읊게 한 그날 밤 꿈에 고당의 신녀를 만나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

다웠으나 깨어난 뒤 꿈에서 본 그 모습을 청초하게 기억하지 못해 송옥에게 가서 그 내용을 말하니 이에 송옥이 신녀의 內美¹³⁾를 강조하여 언급한다. 이에 양왕은 그녀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듣고 싶은 충동을 느껴 송옥에게 그녀에 대해 자세히 읊으라고 하니 송옥은 그가 들은 바의 신녀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열거법적으로 묘사하여 읊조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신녀의 아름다움을 온갖 비유와 과장으로 총괄하여 서술하며, “그 아름다움 끝이 없다(其美無極)”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신녀의 아름다움을 용모, 얼굴, 코, 눈썹, 붉은 입술, 신체, 자태 등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신녀와 사람과 교류하는 情態를 자세히 열거법적으로 묘사하며, 마지막에 신녀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아쉬운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송옥은 초사체와 시경 4언체로 신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려하게 열거하며 포장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열거법적으로 포장 서술하여 제왕이나 貴人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한 그들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초사와 한부에 흔히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신녀부>의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절록하여보면 아래와 같다.

楚나라 襄王이 宋玉과 雲夢의 浦口에서 노닐다가, 송옥으로 高唐의 일을 읊도록 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들어 과연 꿈에 神女를 만났는데, 그 상태가 심히 아름다워 왕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다음날 송옥에게 이를 말했다. 송옥이 말하기를: “그 꿈이 어떠하십니까?” 왕이 말하기를: “저녁 이후에 정신이 황홀하여 기쁜 바가 있는 것 같았으나, 어지러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눈이 희미하여 처음에 약간 기억나는 것이 있다. 한 婦人을 보았는데 상태가 매우 기이했다. 잠들면 그녀를 꿈꾸게 되지만, 깨면 스스로 알지 못하겠다. 슬퍼서 즐겁지 않고 뜻을 잃었다. 이에 심기를 안정시키고 다시 꿈에서 본 것을 회상하려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상태가 어떠한가?” 송옥이 말하기를: “무성하고 아름다워 모든 좋은 것을 갖추고 있고, 성대하고 고와 측정하여 궁구할 수가 없습니다. 上古 때부터 없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바이니, 아름답고 고운 자태 가히 칭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처음 왔을 때 밝기가 흰 해가 처음 집

13) “性和適, 宜侍旁, 順序卑, 調心腸”

대들보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오니 희기가 해와 달과 그 빛을 함께 합니다. 순식간에 미모가 흘러넘치고 광채가 찬란하며 부드러기가 보석과 같습니다. 五色이 함께 치달아 빛나 가히 흘러넘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세히 그녀를 보니 사람의 눈을 흘립니다. 그 성대한 장식은 비단의 성대한 무늬 극히 묘한 채색 사방에 비춥니다. 비단 옷 상 하의를 입고 두터운 옷 짧지 않게 섬세한 옷 길지 않게 걸음 사뿐 사뿐 전당을 밝게 합니다. 홀연히 얼굴을 바꾸니 아름답기가 노니는 용 구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옷 얇은 복장 몸에 맞고, 蘭澤에 목욕하고 아름다운 芳草 머금으며,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마치 옆에서 시중 드는 것 같고 공손하고 부드러우며 마음을 조절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대하니 시험 삼아 과인을 위하여 그것을 읊어보아라.” 송 옥이 말하기를: “예 예.” 했다.(楚襄王與宋玉游于雲夢之浦, 使玉賦高唐之事。其夜, 王寢, 果夢與神女遇, 其狀甚麗, 王異之, 明日以白玉。玉曰: “其夢若何?” 王曰: “晡夕之後, 精神恍惚, 若有所喜, 紛紛扰扰, 未知何意。目色彷彿, 乍若有記。見一婦人, 狀甚奇異。寐而夢之, 寤不自識。罔兮不樂, 悵然失志。于是擾心定氣, 復見所夢。王曰: 狀如何也? 玉曰: 茂矣, 美矣, 諸好備矣, 盛矣, 麗矣, 難測究矣。上古既無, 世所未見, 環姿偉態, 不可勝贊。其始來兮, 耀乎若白日出照屋梁。其少進也, 皎若日月舒其光。須臾之間, 美貌橫生, 曄兮如華, 溫乎如寶, 五色并馳, 不可殫形。詳而視之, 奪人目精。其盛飾也, 則羅紈綺縠盛文章, 極妙采照萬方, 振綉衣, 被袿裳, 襜不短, 衿不長, 步裔裔兮曜殿堂。忽兮改容, 婉若游龍乘雲翔。嬋被服, 倪薄裝, 沐蘭澤, 含若芳, 性和适, 宜侍旁, 順序卑, 調心腸。王曰: “若此之盛矣, 試爲寡人賦之。” 玉曰: “唯唯。”)

무릇 얼마나 神女가 아름다운가, 陰陽의 두터운 수식을 머금고 있네. 좋은 화려한 복식을 입으니, 비취새의 펼친 날개쪽지 같네. 그 형상은 짝이 없고, 그 아름다움 끝이 없네.……화가 나 얼굴이 약간 푸르게 변해 스스로 궁지를 가져 일찍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네.……기쁜 정이 받아들이지질 않아 장차 인사하고 떠나려고 하네.……창자가 뒤틀리고 氣를 아프게 하며 魂이 넘어져도 기델 곳이 없네. 어둑 어둑하여 홀연히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겠네. 연정을 홀로 품어도 누가 가히 말하리. 슬퍼 눈물을 드리우며 (신녀를) 구하여 아침까지 이르네.(其象無雙, 其美無極. 夫何神女之姣麗兮, 含陰陽之渥飾. 被華藻之可好兮, 若翡翠之備翼. 其象無雙, 其美無極.……頰薄怒以自持兮, 曾不可乎干犯.……歡情未接, 將辭而去.……回腸傷氣, 顛倒失据. 暗然而暝, 忽不知處. 情獨私懷, 誰者可語. 惆悵垂涕, 求之至曙.)

6. 결론

송옥의 <고당부>와 <신녀부>는 왕일의 《초사장구》에도 편집되어 들어있지 않고, 후인들이 편찬한 《진한부》에도 편집되어 들어있지 않아, 초사와 한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들 작품 연구가 빠져있었다. 게다가 이들 작품은 호색부 계열이어서 일반적으로 유가적 성격의 소유자들인 역대 중국 학자들에 의해 그 연구가 기피되어온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전국 초와 한 나라에 호색적인 기풍이 많이 일어 당시 이런 호색부가 지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송옥의 이들 2부는 분명 호색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중국학자들은 한결같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읊은 것으로 근엄하게 유가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들 2부는 楚 襄王의 물음에 對한 宋玉의 열거법적 포장 서술을 한 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당의 아름다운 경치를 열거법적으로 읊은 <고당부>와 그 곳에 사는 신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열거법적으로 읊은 <신녀부>는 초사와 한부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답체와 열거법적 포장 서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A Study of Songok(宋玉)'s <Godangbu(高唐賦)> <Sinnyeobu(神女賦)>

Kim, Inho

Songok(宋玉)'s <Godangbu(高唐賦)> and <Sinnyeobu(神女賦)> were not in Wangil(王逸)'s 《Chosajanggu(楚辭章句)》, additionally those were not compositions that offspring composited in 《Jeonhanbu(全漢賦)》. So chinese scholars who researched about Chosa(楚辭) and Hanbu(漢賦) didn't research those two <Godangbu(高唐賦)> and <Sinnyeobu(神女賦)>. Additionally those compositions contain sensualitic contains, so chinese confucianists didn't want to research those. But in the Cho(楚) province of Jeanguk(戰國) era and Han(漢) empire, sensualitic atmosphere was in fashion. Songok(宋玉)'s two compositions were obviously sensualitic contains. But a few chinese scholars analyzed as the relationships about king and retainers. Those two compositions are Songok(宋玉)'s answers about Cho(楚) Yang(襄) king's questions. <Godangbu(高唐賦)> contained about beautiful scenery in the Godang(高唐) and <Sinnyeobu(神女賦)> contained about beautiful woman who lived in the Godang(高唐).

Key Words : Songok(宋玉), Godangbu(高唐賦), Sinnyeobu(神女賦), sensualitic contains, splendid description, questions and answers

투 고 일 : 2012. 9. 4. / 심 사 일 : 2012. 9. 19. ~ 2012. 10. 7. / 게재확정일 : 2012. 10. 10.